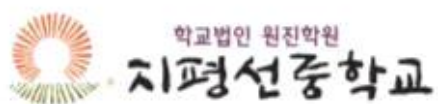


2024학년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2024학년도 지평선중학교 학부모 교육



【 목 차 】

1. 목적
2.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청소년 도박
4. 약물 오남용 예방
5. 흡연 예방
6. 음주 예방
7.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8.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9.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1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1. 장애 이해 교육
12. 정보통신 윤리교육
13. 학부모 청렴 연수
1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
15. 교육활동 침해보호
16. 자녀 소통 교육
17. 단위학교 학부모회 회비 조성 금지 협조 요청

1 목 적

-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공감능력 제고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2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럴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부모가 **학교생활**이나
친구들에 관해
자주 물어볼수록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요.

-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으려 한다.
- ★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는 다음과 같아요.

-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불리거나 야유나 헐담이 많이 올라온다.
-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아울러 우리는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다면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7'

☎ #0117

-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상담 서비스 등

안전 Dream

🌐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안전 Dream(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 학교폭력 실시간 접수(익명 접수 등 포함)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족돌봄휴가

이런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 학교,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할 때 등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학부모님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교육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어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 학교폭력, 얼마나 아시나요? 5차시 과정

▶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5차시 과정

▶ 학교폭력 소탕 대작전 8차시 과정

교육을 수강하시면 이수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회원가입 후 이용해 보세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평상시 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1 자녀의 '자기 이해 능력'을 신장시켜 주세요.

- 자녀의 장점을 말이나 글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글로 적어보는 활동들은 감정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 공감에 기초한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세요.

- 자녀와 공통점 찾기, 경청하기, 포용하기 등

*공감에 기초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해 보세요.

3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주세요.

-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 찾기, 차이를 이해하기 등

*평화로운 가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다짐해 보세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건강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공감에 기초한 가정의 분위기는 학생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자아존중감



건강한 감정조절 역량



공감에 기초한 의사소통 방법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 전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3 청소년 도박

1 도박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 도박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승패가 대체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2 청소년 도박

1) 대리입금(줄임말-댈입)

- 대리입금: 소액의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돈을 빌려 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
- 10만원을 빌려 주고 1주일 후 이자로 3만원 이상 요구(연 1,500%이상, 법정최고이자는 연24% 이하)
-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2) 친구들간 고리 금전거래

- 10만원을 빌릴 경우 선이자(수고비)로 3만원을 떼고 7만원을 대출 후 1주일 뒤 15만원 상환 요구. 약속된 1주일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간당 과금 부과.
- 친구들간 법정최고이자(연 24% 이하)를 훨씬 뛰어넘는 이율 적용,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짐

3) 대리베팅 및 강제베팅

- 본인의 도박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 친구의 계좌를 빌려 대리베팅을 하는 사례
- 불법도박 운영에 가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친구나 후배들을 강제로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

4)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 고가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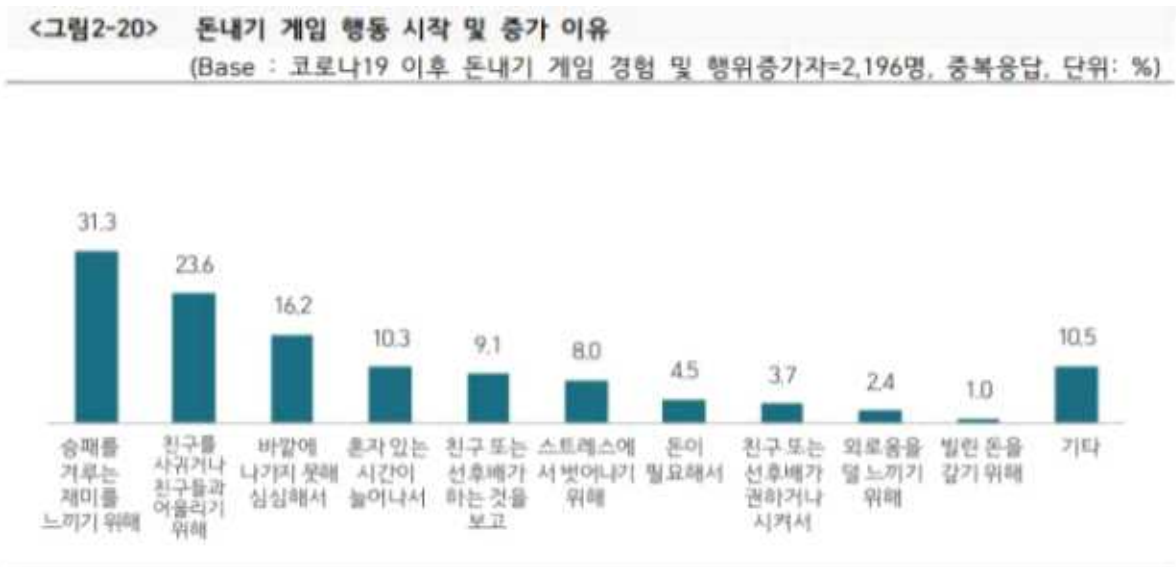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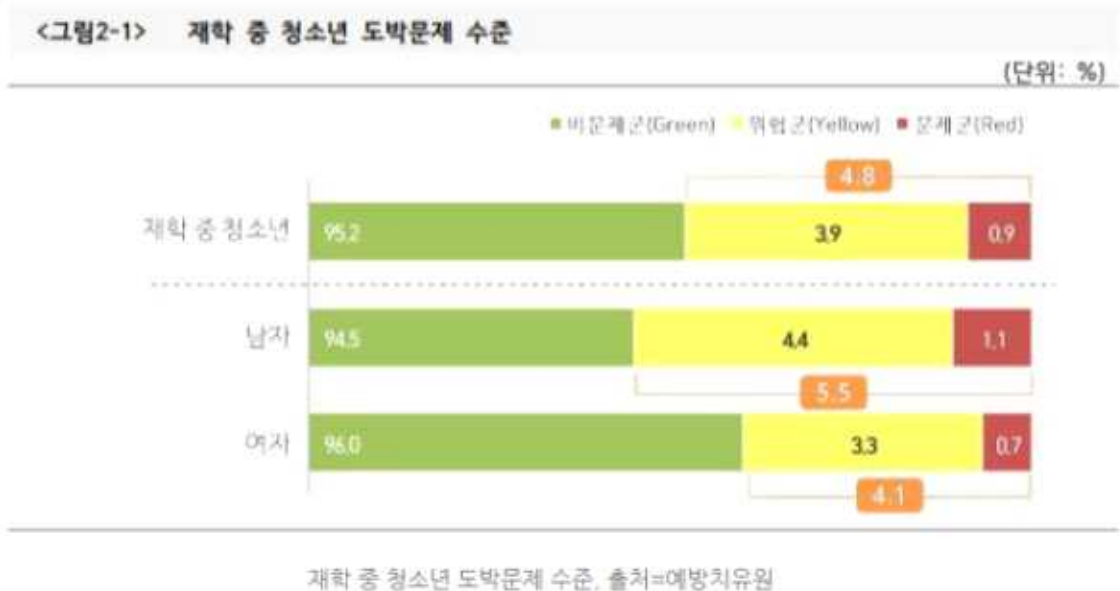
※ 도박자금 관련 대리입금, 학생간 고리사채,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3 도박문제 관련 피해 예방 및 대처법

- 청소년 도박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세요!
- 자녀의 행동에서 아래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 도박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자녀와 도박으로 인해 어떤 문제(금전, 학업, 교우관계 등)가 생겼는지 확인한 다음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박문제 전문상담(국번없이 1336)을 신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중독 증가세… 연령대는 더 낮아져

도박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청소년 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 2017년 837건 △2018년 1032건 △2019년 1328건 △2020년 1597건 △2021년 2269건으로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주로 부모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도박을 시작한 이유는 '승패를 겨루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31.3%)',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23.6%)', '바깥에 나가지 못해 심심해서(16.2%)',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9.1%)', '돈이 필요해서(4.5%)', '친구 또는 선후배가 권하거나 시켜서(3.7%) 순으로 집계됐다.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대한민국은 어쩌다 '마약 공화국'이 됐나

2022년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통계가 파악된 30년 이래 역대 최고고,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13.9퍼센트나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2017년에 비하여 5배나 급증해 청소년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 . . .

-출처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항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약물(필로폰)을 사용하여 변한 얼굴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푸글푸글해졌다.



필로폰
두약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지로), 온라인송금
예금주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좌번호 : 기업은행 327-001666-04-02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www.drugfree.or.kr
Tel. 02-2677-2245 Fax. 02-2677-2247 중독재활센터 02-2679-0437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 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흡연은 이를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정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에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압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레이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농양이 온다.



흡입제는 폐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3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 1899-0893
-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4 항생제 내성 예방

2020.11.16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예방,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알아보기

1/6

2020.11.16 질병관리청

“
**항생제는 우리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
”

하지만,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가
생긴 사실 알고 계시나요?

2/6

2020.11.16 질병관리청

2050년이 되면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전 세계에서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OECD평균과 한국 항생제 사용량 비교

| 연도 | OECD | 한국 |
|-------|------|------|
| 2014년 | 19.9 | 31.7 |
| 2018년 | 19.8 | 29.8 |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20

3/6

2020.11.16 질병관리청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50년에는 무려
3초에 한명씩 사망!**

그 말인 즉, 암으로 죽는 사람 수 보다
슈퍼박테리아로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영국정부 발표 Jim O'Neill 보고서)

그렇다면 이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6

2020.11.16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

- 1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한다.
- 2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처방받은 대로 방법,기간을 지켜 복용한다.
- 4 감염예방수칙 준수 (손씻기,예방접종 등)

2020.11.16 질병관리청

**11월 3주는
WHO에서 지정한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이제는 우리 모두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구역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

“폐암 환자 살펴보니 직접 흡연자 70%-간접 흡연은 1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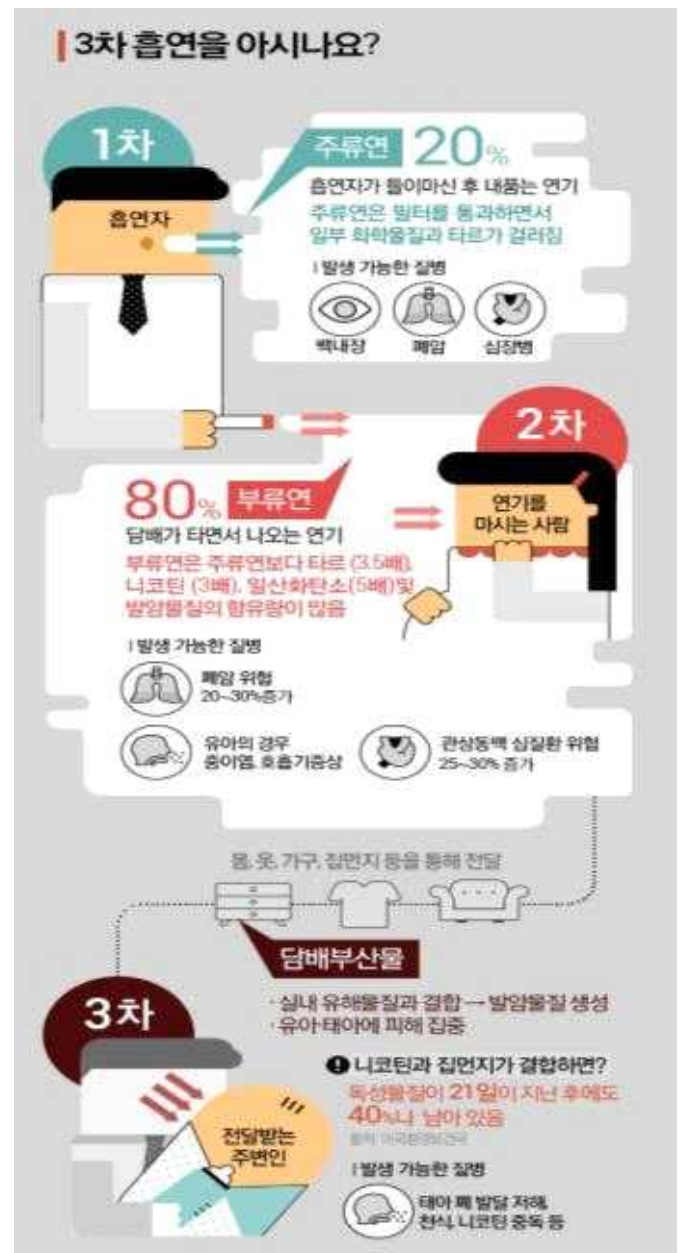
...(중략)...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 주임과장은 "흡연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과 사망이 발생함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 정도로 높다.

흡연은 여러 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폐암**이다.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폐암 환자의 흡연율이 70% 정도였으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문진 등의 방법을 사용한 이번 연구에서는 81.3%가 흡연과 연관성을 보였고, 젊은 층에서 흡연자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더욱 금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전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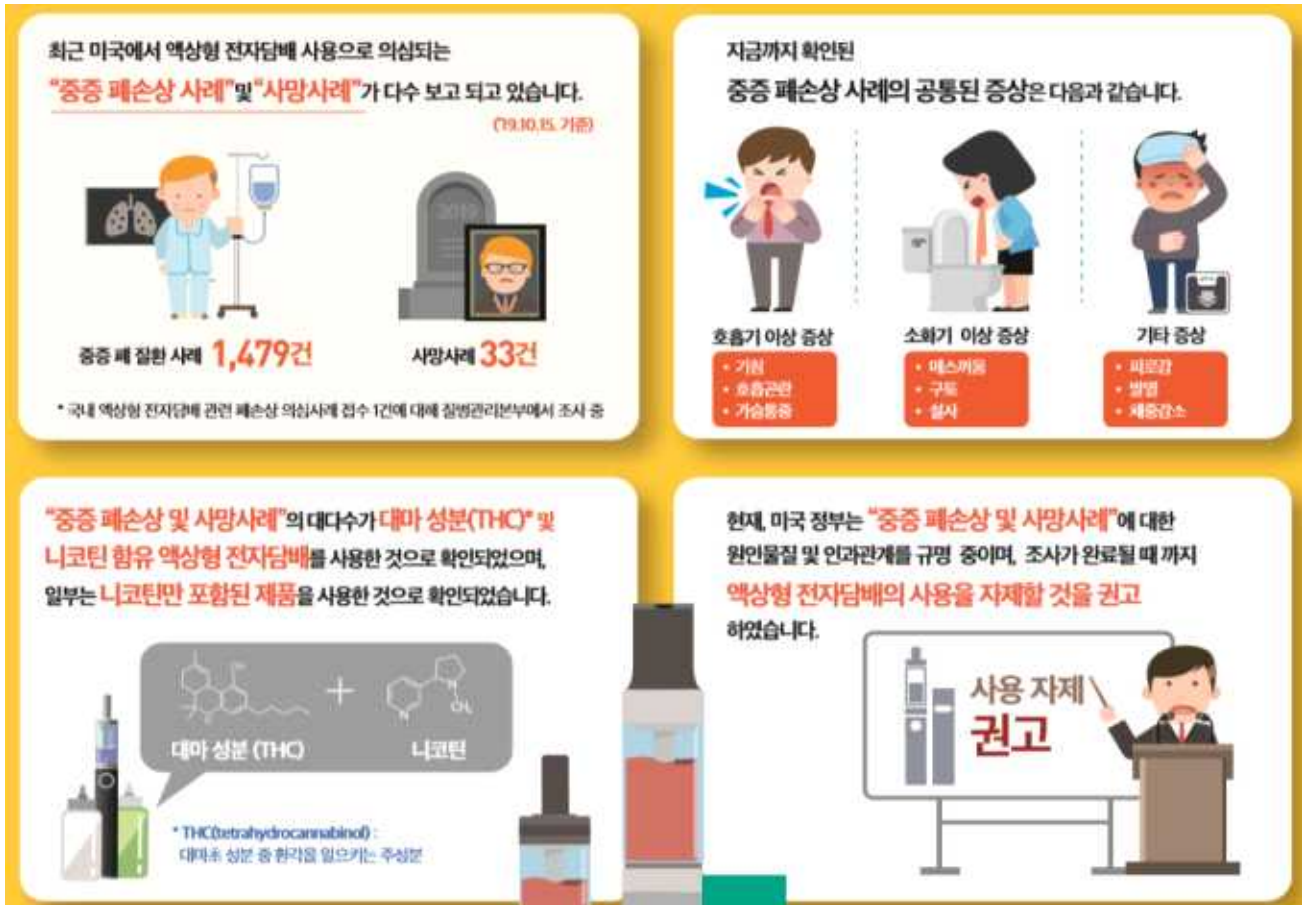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61&sc_word=%ED%9D%A1%EC%97%B0&sc_word2=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 전자담배의 위험성

- 1)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 릴, 아이코스
- 2)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오해 1위.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

-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해 2위.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

-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
-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 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

오해 3위. 전자담배(니코틴 함유)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전자식 흡연 욕구저해제(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

1 코로나 19영향으로 인해 변한 우리나라 음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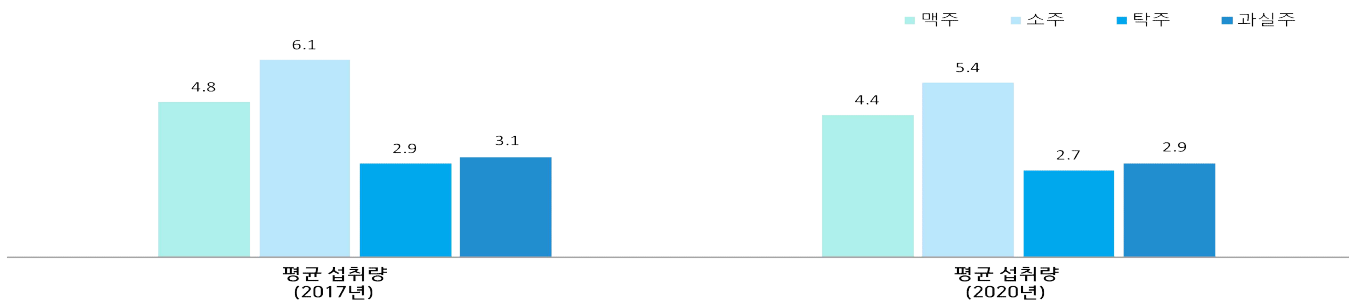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음주량 줄고 '혼술, 홈술' 늘어

식약처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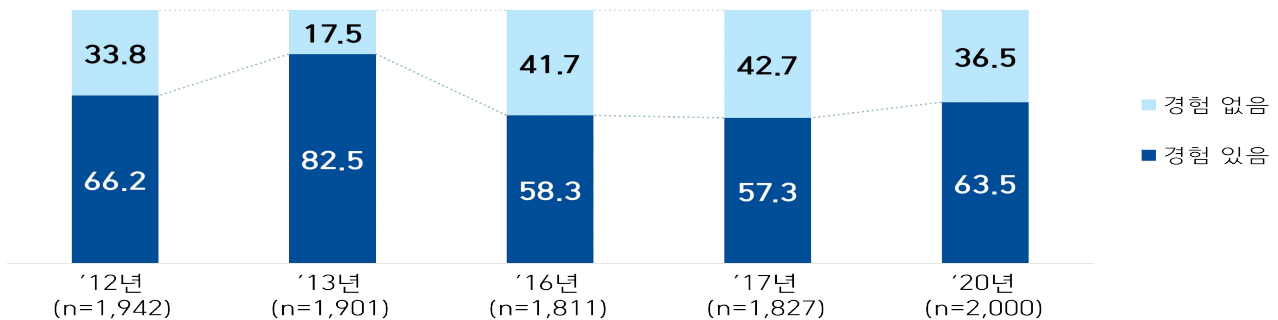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평균 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증가**하는 등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하여 건전한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 실태조사 주요 결과

○ 1회 평균 섭취량 비교(단위: 잔)



○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



※ 고위험 음주량은 순수 알코올 양으로 남자 60g, 여자 40g이상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 WHO 제시 1일 알코올 섭취량 기준

| 구분 | 알코올 섭취량 기준(g) | | 소주(17도) 기준(잔)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저 위험군(저위험 섭취량) | 1~40 | 1~20 | 0.1~5.9 | 0.1~2.9 |
| 중간 위험군 | 41~60 | 21~40 | 6.0~8.8 | 3.1~5.9 |
| 고 위험군 | 61~100 | 41~60 | 9.0~14.7 | 6.0~8.8 |
| 매우 위험군 | 101+ | 61+ | 14.9+ | 9.0+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술래잡기 인포그래픽

건강한 음주를 위한 주류섭취 습관

여러분은 건강한 음주문화를 얼마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음주문화의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음주 실천 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보세요.

건강한 음주문화 실천법

- 1 일코를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한다

- 2 식사를 먼저 한 후 술을 마신다

- 3 술을 마실 때 물 등을 자주 마신다

- 4 본인의 주량을 알고 술을 마신다

- 5 지나친 음주를 자제한다

- 6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


• 음주와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2) 아동학대 유형

가. 신체 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나. 정서 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다. 성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라.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3) 양육자의 역할 (가정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 **자녀의 보호자로 올바른 양육**
- **가정의 조력자로 구성원 의견 경청**
- **가정 구성원으로 존중·배려**

4) 아동학대 신고요령

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 신고

나. 아동학대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아동학대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출결 처리 방법

- 대상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하는 학생
- 처리방법 : 보호 기간을 '위탁교육'으로 처리, 출석 인정 조치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1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2 긍정 양육의 실천 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9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

| | | |
|---|--|--|
| <p>1 자녀 알기</p> <p>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보세요.</p> | <p>2 나 돌아보기</p> <p>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p> | <p>3 관점 바꾸기</p> <p>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p> |
| <p>4 같이 성장하기</p> <p>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p> | <p>5 온전히 집중하기</p> <p>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p> | <p>6 경청하고 공감하기</p> <p>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p> |
| <p>7 일관성 유지하기</p> <p>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p> | <p>8 실수 인정하기</p> <p>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p> | <p>9 함께 키우기</p> <p>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p> |

1 성희롱 · 성폭력의 법령상 개념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은 구별됨. '성폭력'은 형법을 기본으로 하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둠.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둠

| 구분 | 관련 법령 | | 법 적용 |
|-----|--|---|----------------------------|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상위기관에 제소 |
| 성폭력 | 기본법 | 형법 | 형사처벌 |
| |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 |

2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개념

-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

| | | |
|-------------------------|---------|--|
| 학교 내 성희롱 대상 (피해자)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관련 판례에 근거 |
| | 교직원(성인)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근거 |

3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유형

| | |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상대방의 심신 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없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

| | |
|---------|--|
| 성희롱 |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성학대 |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
| 스토킹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 디지털 성폭력 |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 |

4 성폭력 관련 신고 의무제도

-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과 교직원은 성폭력 현장을 보거나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교직원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경찰 신고
- **신고의무자** : 기관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 후 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 기관장 및 종사자 간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누구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 대상 성범죄’의 종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 **‘직무상 알게 됨’의 의미** : 피해자의 주장 등으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 **‘즉시’의 의미** :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신고’의 의미** : ☎ 117,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서, 112 등 수사기관에 발생시간, 장소, 피해자, 가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림(신고접수증 확보 또는 접수자 정보와 시간 확인)
 -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 있음
- 관련 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67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신고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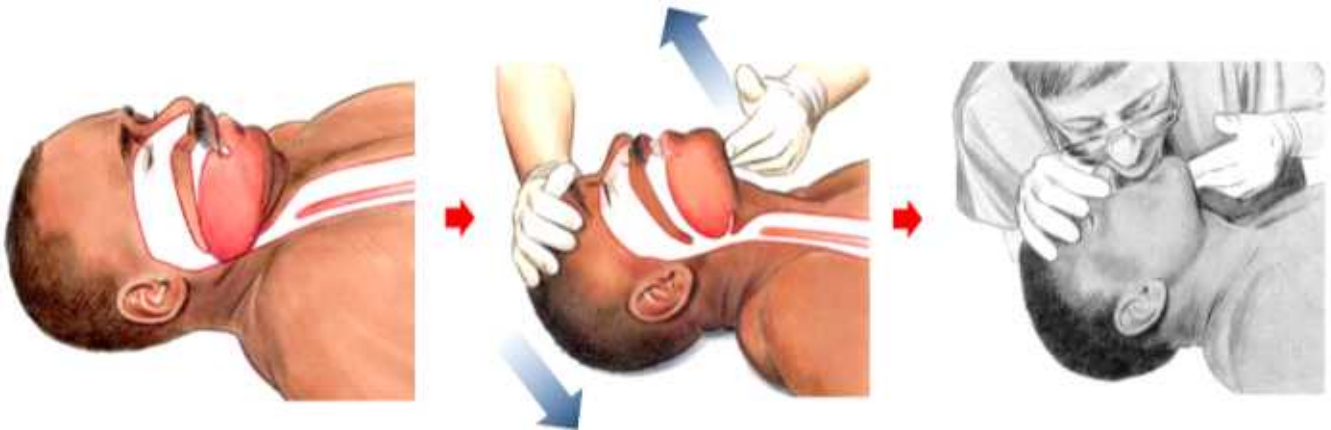
1. 강하게 누르고, 완전히 이완



2. 중단없이 계속: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3. 가슴압박 중단시간

“10초 이내”



| | 성인 | 소아 | 영아 |
|----|-----------|-----------|-----------|
| 위치 | | | |
| 자세 | | | |
| 깊이 | 5cm 내외 | 4~5cm | 4cm |
| 속도 | 100~120/분 | 100~120/분 | 100~120/분 |

STEP 01 ●



전원 켜기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먼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STEP 02 ●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오른쪽 빗장뼈 아래 |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랑선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다.



STEP 03 ●



심장리듬 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뗐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STEP 04 ●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깜박이는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제세동)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STEP 05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이러한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3

기도폐쇄 : 복부 밀어내기법(Heimlich 법) -음식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일 때

- ①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 사이에 처치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지탱한다.
- ②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처치자의 한쪽 손을 말아 쥐고 환자의 검상돌기(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댄다.
- ③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

성인 하임리히법

| | |
|--------------------------------|---|
| | |
| <p>1 상태 확인 후 119 신고</p> | <p>2 자발적인 기침 유도, 기침을 못할 경우 복부 밀어내기 시행</p> |
| | |
| <p>3 배꼽과 명치 중간에서</p> | <p>오른손으로 왼주먹을 감싸고 안쪽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냄</p> |

1 자살의 징후

• 자녀의 정신 건강은 어떤가요? 자살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 미리 알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어적 단서 | 정서, 행동적 단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 일기장, 낙서의 암시 • 내가 사려져 줄게 •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 이젠 정말 끝이야 •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 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행동 변화, 활동 수준의 증가/감소 •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사람에게 나누어 줌 • 소중한 물건이나 상장 등을 버리기 •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 수면형태 변화 • 단정치 못한 외모 •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 호소 •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으로라도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



2 대응 방법

| | |
|--|--|
| ① 경청 | 주의 깊게 듣는다. |
| ② 격려 | 당신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
| ③ 심각한 자해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때 민감성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p>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p> <p>자살에 대한 생각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담담하게 자살의 의도를 표현하더라도 신중히 처리한다.</p> |
| ④ 행동을 취한다. |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느낄 때는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연락 한다.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

11 장애 이해 교육

1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2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입니다.

3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주는 효과 | 일반 학생에게 주는 효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 어려서부터 통합된 환경에서의 성장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기술을 배우며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도움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 - 통합학급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향상 - 친구를 도우면서 타인을 돕는 방법을 배우며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학습효과 증진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또래교수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인권 감수성 향상 -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급 문화가 형성됩니다. |

|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구를 부르고, 지칭하는 말은 친구의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친구를 불러주고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친구에게 열린 마음으로 인사하고 다가가도록 해주세요. 2. 배려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 소중한 부모님의 자녀를 물어지게 보거나 수군댄다면 기분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지도해주세요. |
| <p>‘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p> <p>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배려·존중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p>학교는 작은 예비 사회입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할 때 친구들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존중하고 사이좋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p> |

1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컴퓨터 사용습관

- 컴퓨터는 가족들과 협의한 후 거실과 같은 공동 공간으로 옮긴다. 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 약속을 정하고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컴퓨터를 사용할 때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인다. 정보 검색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시간과 1:1의 비율로 맞추도록 노력한다.
- 중독성이 강한 롤 플레잉 게임이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중독성이 약한 스포츠 게임이나 캐주얼 게임 등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 컴퓨터를 하는 사이 30분에 한번 정도는 쉬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먼 곳을 응시하며 잠시 눈을 쉬게 한다.
- 가족, 특히 부모와의 부적절한 의사 소통도 인터넷(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강압적인 부모의 태도나 일관적이지 않는 양육 방식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에 빠지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의사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한다. 혹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한다. 내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은 부모도 함께해보도록 한다. 자녀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대화를 통한 소통도 쉽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2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컴퓨터 사용 습관

-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 둔다. 수업 시간이나 업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꼭 필요한 앱만 사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앱은 삭제한다.
- 걸어다닐 땐 되도록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는다.
-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본다. 메모를 위한 수첩이나 스케줄 관리를 위한 다이어리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아이들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바로잡기-

네티켓이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들 역시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인 네티켓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 입니다.

02 바른 언어 사용하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비속어나 신조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속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심어줄 수 있고, 상대방 역시 화를 풀기
위해 다른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하는 올바른 언어를 통해, 인터넷 문화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04 불법다운로드 금지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입니다.
오랜 시간과 수많은 생각 끝에 나온 창작물을 대가 없이 다운받게
된다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관련 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주세요

01 익명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인터넷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긴채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속 모두가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려주고, 익명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03 악플 남기지 않기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악플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표하는
것은 좋지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이더라도 과격한 표현은 삼가 하도록 지도해주세요.

청탁 유형별 적용 규범

사회상규

- 법령·기준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공개적인 요청
- 선출직 공직자 등의 공익적 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제도 개선 건의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청 등
- 직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증명 요청
-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해석 요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사익
+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
(내부기준 위반 등)

법령위반
(법령상
자위·
권한남용)

- 인·허가 등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 인사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 입찰·경매 등 비밀누설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 보조금·장려금·배정 등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 부대배속 등 병역 처리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행정지도·단속·감사 대상배제 등
-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합 법

행동(윤리)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대상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A.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인 청탁금지법(부장청탁, 공물품 수수 금지)이 적용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1(간)재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1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

1 공교육 정상화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2 선행학습의 문제점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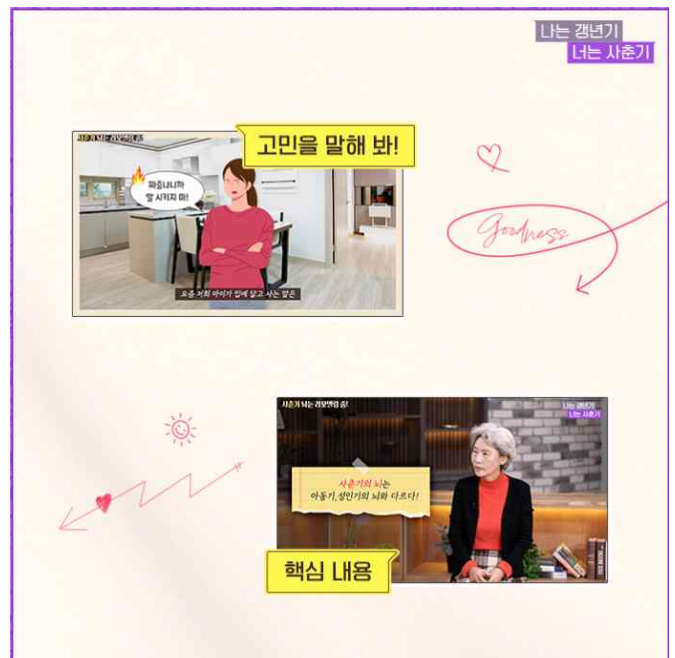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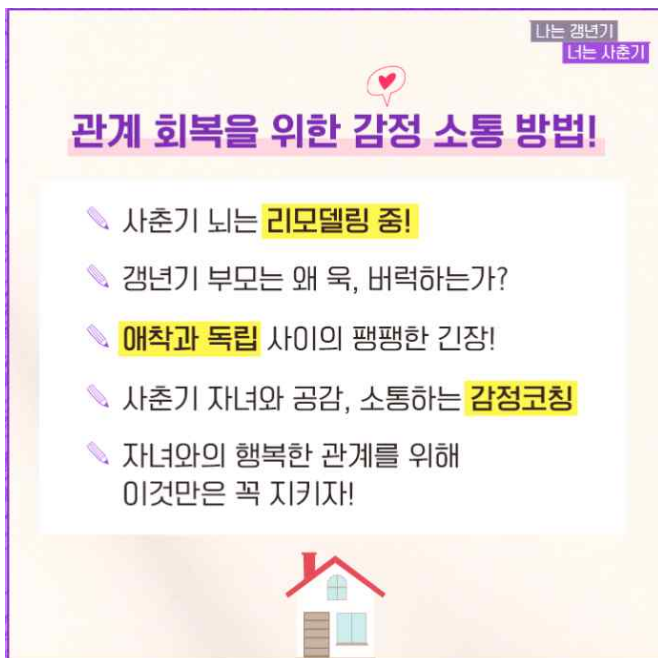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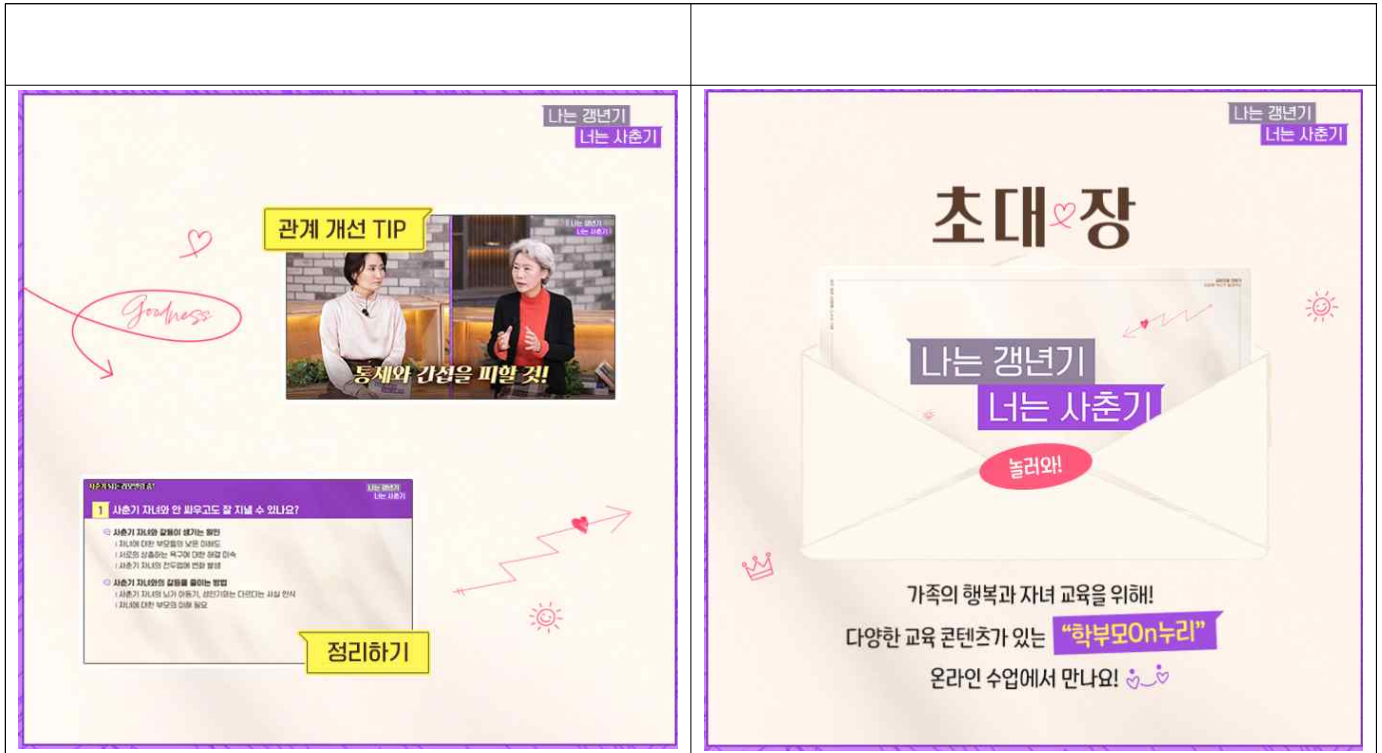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서울시 약 4조 2,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 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 | |
|---|--|
| <div data-bbox="118 367 794 1025">  <h2>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2> <p>「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p> </div> <div data-bbox="702 367 794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생 학부모 </div> | <div data-bbox="794 367 1495 1025">  <h2>교사</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문욕·문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div> <div data-bbox="1388 367 1495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생 학부모 </div> |
| <div data-bbox="118 1285 794 1944">  <h2>학생</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div> <div data-bbox="702 1285 794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생 학부모 </div> | <div data-bbox="794 1285 1495 1944">  <h2>학부모</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div> <div data-bbox="1388 1285 1495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학생 학부모 </div> |





17 단위학교 학부모회 회비 조성 금지 협조 요청

1 관련 : 교육협력과 -1243(2024.3.5)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조제3항에 따라 학교행사 및 학생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부모회 회비 모금 및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학부모회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